

# 대우건설 047040

## 2Q24 Review: 아쉬운 국내와 기대되는 해외

### 유틸리티/건설

Analyst **문경원**, CFA  
02. 6454-4881  
kyeongwon.moon@meritz.co.kr

### RA **윤동준**

02. 6454-4886  
dongjun.yoon@meritz.co.kr

### 대손상각비 인식과 악화되는 현금흐름

2Q24 연결 영업이익은 1,048억원(-51.9% YoY, -8.7% QoQ)을 기록하며 컨센서스(1,243억원)를 하회. 매출총이익은 2,756억원(+28.3% QoQ)을 기록하며 회복세. 토목(-421억원 QoQ) 부문에서는 싱가포르 및 중동 현장에서의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일회성 비용 인식이 있었으나, 그 외에 주택(+304억원 QoQ), 플랜트(+179억원 QoQ), 연결 중속(+546억원 QoQ) 모두 수익성이 개선. 특히 일부 현장에서 도급 증액을 통해 주택 원가율이 개선(+0.6%p QoQ)된 점이 긍정적. 연결 중속에서는 3Q24에 기대했던 베트남 토지 매각 이익 인식이 생각보다 이르게 이뤄지면서 2Q24에 이익 개선이 나타남

문제는 판관비 상승(+554억원 YoY, +707억원 QoQ). 일부 준공후 미분양 현장에서의 대손상각비를 약 520억원 반영. 4Q23에 이어 또 한번 대손상각비 발생. 2024년 연말로 갈수록 준공 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. 현금흐름도 악화 중. 2Q24 순차입금은 약 1.9조원(+0.9조원 YoY, +0.6조원 QoQ). 하반기 입주 현장에서 잔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주가 흐름에 있어 최대 관건

### 하반기는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릴 때

분양, 국내 수주가 2024년 연간 목표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성장하는 가운데, 해외 수주는 상반기에 연간 목표(3조원)의 3.4% 만을 달성. 다만 3Q24 투르크메니스탄 요소 암모니아 플랜트(금액 미정), 3Q24 리비아 등 아프리카 인프라 재건사업(9,000억원, 수의계약), 4Q24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(1.8조원) 등 파이프라인이 건재해 하반기에는 해외 수주 성장을 관찰할 수 있을 전망

체코 원전 수주 규모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. 다만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한 호기 당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(12조원), 시공사의 몫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. 본계약이 맺어질 2025년 3월 전후로 수주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 하반기 부대공사 착공, 본공사는 2029년 착공 전망. 동사는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팀 코리아의 일부로서 참여 중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추가 수주도 기대 가능

표1 대우건설 2Q24 실적 Review									
(십억원)	2Q24P	2Q23	(% YoY)	1Q24	(% QoQ)	컨센서스	(% diff.)	당사 예상치	(% diff.)
매출액	2,821.6	3,271.4	-13.7	2,487.3	13.4	2,650.0	6.5	2,572.4	9.7
영업이익	104.8	217.7	-51.9	114.8	-8.7	124.3	-15.7	120.7	-13.2
세전이익	135.3	310.3	-56.4	136.4	-0.8	122.4	10.6	122.4	10.5
순이익	94.7	199.5	-52.5	89.3	6.0	83.0	14.2	86.6	9.3

자료: 대우건설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